

2016. 1.

- 전라북도의회 대표단 -
중국 사천성 및 운남성 방문 결과



전라북도의회

목 차

I. 국제교류 개요

1. 방문개요 1
2. 방문단 명단 2
3. 세부 방문일정 2

II. 국제교류 및 비교시찰 현황

1. 한중문화협회 성도지부협회 간담 및 만찬 3
2. 사천성인대와 우호교류 비망록 체결 3
3. 운남성인대 간담 및 만찬 4
4. 비교시찰지 현황 5

III. 교류성과 6

- ※ 붙임 - 주요 언론보도내용 8
 - 사천성 및 운남성 주요현황 10

전라북도의회 대표단 중국 사천성 및 운남성 방문결과

- 사천성은 우리도와 같이 세계음식창의도시에 가입되었고 태권도 등의 민간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천성인대를 방문하여 의회 차원에서 우호교류 의향을 타진하고
- 현재 우호협력관계에 있으나 교류가 중단된 운남성인대와의 우호 교류 재개 협의

I. 국제교류 개요

1 방문 개요

- 방문기간 : 2015. 12. 15.(화) ~ 12. 19.(토), 4박 5일
* 출국 12. 15.(화) 02:00(전주) / 입국 12. 19.(토) 21:00(전주)
- 방문인원 : 10명(의원 6, 공무원 4)
- 방문지역 : 중국 사천성 및 운남성
- 주요내용
 - 사천성인대와의 우호교류 의향 타진
 - 운남성인대와의 우호교류 재개 협의

○ 주요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현지시간 기준)	비 고
12. 15.(화)	◦ 인천 출발(08:55) → 상해 도착(09:30)	MU5052
	◦ 상해 출발(16:00) → 성도 도착(19:30)	MU294
12. 16.(수)	◦ 사천성인대 방문 대표단 회담	
12. 17.(목)	◦ 성도 출발(10:40) → 곤명 도착(12:10)	MU5842
	◦ 운남성인대 방문 대표단 회담	
12. 19.(토)	◦ 곤명 출발(07:55) → 상해 도착(11:00)	MU 747
	◦ 상해 출발(14:10) → 김해 도착(16:50)	MU9829

2 방문단 명단 : 10명(의원 6, 직원 4)

연번	구분	성명	직위	비고
1	단장	황현	부 의 장	
2	단원	백경태	운 영 위 원 장	
3	“	강영수	환 경 복 지 위 원 장	
4	“	강병진	산 업 경 제 위 원 장	
5	“	이성일	문 화 건 설 안 전 위 원 장	
6	“	양용모	교 육 위 원 장	
7	처장	이종석	사 무 처 장	
8	수행원	장영조	총 무 팀 장	
9	“	김오신	직 원	
10	“	김윤경	직 원	

3 세부 방문일정

일자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제1일 12.15. (화)	03:00~07:00	240' ○ 전주 → 인천공항	
	08:55~09:30	35' ○ 인천공항 → 상해포동공항	
	16:00~19:30	220' ○ 상해홍교공항 → 성도공항	
제2일 12.16. (수)	09:00~12:00	180' ○ 건축물 보존·관리실태 시찰	
	16:00~18:00	120' ○ 사천성인대 방문 대표단 회담	
제3일 12.17. (목)	10:40~12:10	90' ○ 성도공항 → 곤명공항	
	17:30~20:00	180' ○ 운남성인대 방문 대표단 회담	
제4일 12.18. (금)	10:00~12:00	120' ○ 호수 보존·관리실태 시찰 ○ 운남민족촌 관리·운영실태 시찰	
	16:00~18:00		
제4일 12.19. (토)	07:55~11:00	175' ○ 곤명공항 → 상해포동공항	
	14:10~16:50	180' ○ 상해포동공항 → 김해공항	
	18:00~21:00	180' ○ 김해공항 → 전주	

II. 국제교류 내용

① 한중문화협회 성도지부협회 간담 및 만찬

- 일 시 : 2016. 12. 15.(화) 20:00
- 참석인원 : 22명(도의회 대표단 10명, 상해사무소 2명, 한중문화협회 9명, 관광공사 성도지사장)
- 주요 환담요지
 - 전라북도 및 사천성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양 지역의 민간 교류 필요성에 인식을 한층 높이게 됨



《한중문화협회 성도지부협회장과 함께》



《간담만찬 후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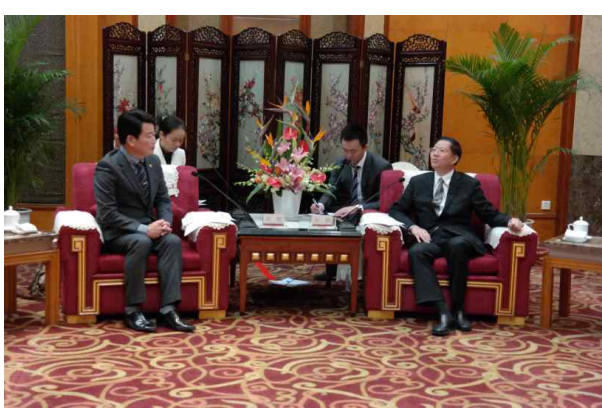
② 사천성인대와 우호교류에 관한 비망록 체결

- 일시/장소 : 2015. 12. 16.(수) 17:30 / 锦江宾馆 锦江厅 会见
- 참석인원 : 19명(방문단 10명, 상해사무소 2명, 한중문화협회 성도지부협회장, 사천성인대 6명)
- 주요 환담요지
 - (왕스푼 부주임) 사천성(성도시)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신청을 한 상황, 이에 대한 전라북도 의회의 관심 부탁과 이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우호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함

- (황현 부의장) 양 도·성은 역사적·문화적 공통점이 많고 태권도를 중심으로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호협력에 관한 비망록』 체결을 통해 양 지역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 2016년도에 사천성인대에서 전라북도 방문하기로 함



《팽유 부주임과 간담》



《우호교류에 관한 비망록 서명 후》

3 운남성인대 간담 및 만찬

- 일시/장소 : 2015. 12. 17(목) 17:30 / 佳华广场酒店
- 참석인원 : 18명(대표단 10명, 상해사무소 2명, 운남성인대 6명)
- 주요 환담요지

- (왕스푼 부주임) 「운남성 곤명 수출입상품 교역회」에 매년 전라북도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심에 감사, 앞으로 경제·무역협력 및 청소년 교류를 강화하여 무역과 문화·체육분야 교류가 이뤄지기를 희망함
- (황 현 부의장) 이번 방문이 운남성인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상호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2016년도에 운남성인대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하기로 하였으며
양 도 · 성 인대 간 상호방문 시 비용부담 협의

《 비용부담 협의 내용 》

- 인 원 수 : 제한 없음(단, 중국인민정부에서 외국방문을 6명 이하로 제한하는 관계로 운남성인대에서 전라북도방문인원은 6명이하로 하기로 함)
- 방문기간 : 2박 3일 ◦ 비용부담 :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를 초청측 부담
- 적용시기 : 2016년도부터



《왕스푼 부주임과 간담》



《운남성인대와 만찬》

4 비교시찰지 현황

무후사(사천성 성도시)



- 무후사는 삼국시대의 촉나라 재상 제갈량을 기념하는 사당으로 송나라 악비가 친필로 쓴 “출사표”와 제갈량 “무호사당비”가 소장되어 문화적 가치가 높음, 현판을 중심으로 펼쳐진 무후사의 건축형태는 베이징의 사합원식으로, 정전의 갈산식 지붕과 중각의 종고, 좌우 거랑의 진귀한 금수 석조가 이채로움

곤명호 및 운남민족촌(운남성 곤명시)



- 곤명호는 곤명의 서남쪽, 남북으로 40km. 동서로는 8km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인공호수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음, 특히 하계도 바다에 사는 갈매기떼(러시아 갈매기가 추위를 피해 오는 철새)가 많아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룸
- 운남민족촌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테마파크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10여개 민족의 생활과 문화를 재연하여 소수민족의 문화를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됨

III. 교류성과

- **한중문화협회 사천성 성도지부와 전라북도와의 교류 필요성 인식**
 - 중국 사천성 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인식을 한층 높이게 됨
- **전라북도의회와 사천성인대 간 우호교류에 관한 비망록(의향서) 체결**
 - 우호교류에 관한 비망록 체결로 양 지역의 공동발전 및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대표단이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여 양 도·성 의회와 인대 간의 신뢰와 우호관계를 촉진할 수 있게 됨

□ 중단되었던 운남성인대와 우호교류 재개 및 비용부담 협의

- 우리도의회와 운남성인대는 2008년에 1회 교차방문한 후 교류가 중단되었었으나, 이번 우리도의회 대표단 방문으로 양 도·성 의회와 인대 간 교류재개의 물꼬를 트게 되었으며, 2016년도에 운남성인대에서 우리도를 방문하기로 함
- 또한, 양 도·성 의회와 인대간 상호방문 시 항공료만 방문측이 부담하고 숙박비·교통비 등 체재비는 초청측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함

□ 전라북도 주요시책 홍보

- (새만금사업) 새만금 현황과 미래잠재력을 홍보하고 새만금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 (태권도원)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와 체험, 수련,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이 전북 무주에 있고, 2017년 5월에 160개국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무주 국립 태권도원에서 개최하므로 사천성인대와 운남성인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함
- 「2016 전라북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운남성인대에 2016. 9월 군산(GSCO)에서 개최하는 UCLG-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총회를 소개하고 운남성인대와 곤명시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함

□ 금후 반영사항

- 태권도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와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천성 태권도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자리 마련
- 전라북도(무주) 생산되는 호두를 이용한 호두 가공식품 상품화 추진방안 모색하기 위해 운남성 호두음료공장 벤치마킹

새전북신문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002면 종합

전북도의회, 중국 사천성-운남성 '교류추진'

전라북도의회 황현(사진) 부의장 및 상임 위원장 단 등 6명은 15~19일까지 중국 사천성과 운남성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중국 사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태권도를 중심으로 민간분야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운남성인 민대표대회를 방문해 2011년 이후 중단된 우호 교류 재개 및 농업분야 등 교류 협력을 협의할 예정이다.



황현 부의장은 "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건설되는 등 중국과 전북의 상호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와 문화 및 정서가 비슷한 두 지역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전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병식 기자

全羅日報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003면 해설

도의회-중국사천성·운남성 오늘 우호교류협정체결 협의

전북도의회 황현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등 6명이 중국 사천성과 운남성 의회간 우호교류협력에 나선다.

도의회는 15일부터 4박5일간 일정으로 중국 사천성인민대표대회와 운남성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태권도를 중심으로 민간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 지역 의회차원의 우호교류협정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

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양 의회간의 우호교류 재개 및 농업분야를 비롯한 두지역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협의할 예정이다.

황현 부의장은 "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 단지가 건설되는 등 중국과 전북의 호혜적 상호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와 문화 및 정서가 비슷한 중국 두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전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장병운기자·argus@

전북도민일보

2015/12/15 화요일
011면 사람들

도의회, 중국 사천성 등 방문

전라북도의회 황현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등 6명이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중국 사천성과 운남성을 방문한다.

황현 부의장 등 도의회 방문단은 중국 사천성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태권도를 중심으로 민간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 지역 의회차원의 우호 교류협정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남성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양 의회간의 우호교류 재개 및 농업분야를 비롯한 두지역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경섭 기자

전북중앙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003면 종합

황현 부의장 중국교류 방문

전북도의회 황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등 6명이 중국 사천성과 운남성을 방문한다. 이들은 오는 19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중국 사천성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우호교류협정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운남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양 의회간의 우호교류 재개 및 농업분야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I. 일반현황



- 인 구 : 8,050만명(2015.4월)
- 수 도 : 성도(청두)
- 면 적 : 485,000km²(중국 5.08% 차지, 한국의 4.9배)
- 지 리 : 동부산지에서는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에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되며, 강수량은 1,000mm 내외이며 '촉(蜀)의 개는 해를 보면 짙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안개가 잦으며 그 반면 서부고원은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나타냄
- 기 후 : 해발 600M 고지인 동시에 분지라 연간 2/3이상이 햇빛 하늘이며 연평균 15 ~18도
- 민 족 : 한족 이외에 이족·창족·먀오족·후이족·창족 등 여러 종족이 살고 있음

○ 경 제

- 식량 생산량과 쌀 생산량 모두 전국 제1위이고 밀·옥수수·보리도 많이 산출되는데 특히 청도우 평원에는 도우장언[都江堰] 등의 관개시설이 정비되어 있다.
- 경제작물로는 목화·저마·차·유채가 주로 재배되고 양잠업도 성하며 과일나무도 많다. 산지에는 1,000만ha나 되는 광대한 원시림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목재 이외에 동유(桐油)·동백유·웃칠·오배자(五倍子)를 비롯하여 한방용 약재도 풍부하다.
- 사육 돼지와 소의 숫자도 전국 제1위를 차지하고 서부고원의 광활한 초원에서는 야크(소와 비슷하며 힘이 세고 큰 짐승)·염소·면양이 사육된다.
- 팬더나 모피를 얻기 위해 기르는 가축도 많다. 지하자원은 종류나 매장량이 모두 풍부한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석유·천연가스·석탄·철·금·구리·알루미늄·아연·소금·석면·운모 등이 있다.
- 소금은 쓰궁[自貢] 일대의 염정(鹽井)에서 산출된다. 석유·천연가스는 쓰촨분지의 중부에 널리 분포하고, 탄전은 성의 동부와 남부에 많다.
- 공산정권 수립 후에는 철강·기계·전기·화학·방직·식품·제지 등의 공업도 급속도로 발전하여 충칭[重慶] 이외에 청두·난충[南充]·네이장[內江]·이빈[宜賓]·쓰궁 등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비단·동기(銅器)·칠기·죽세공 등 공예품의 생산도 활발해졌다.

II. 역사적 배경

- 역사적으로 삼국지의 유비와 제갈량이 세운 “촉한”이 속한 지역이며 중국개혁개방의 총 설계사로 불리는 덩소평의 출신지임
- 중국의 유일한 여 황제 무측천, 시선으로 불리는 당나라 시인이 백, 당송 8대가로 불리는 소순, 소식, 소철 등 유명한 역사인물들을 배출한 지역임

Ⅲ. 특성 및 유사성

① 양 지역 특성

○ 전라북도

- ▶ 전주는 230여개의 지방도시중에서 2개의 왕조가 창업된 유일한 도시
- 9세기 후백제 왕조와 14~19세기까지 500년간 왕위를 계승해 온 조선왕조의 본고장으로 1,200여년의 역사를 자랑
- ▶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의 유일한 도심속 군락지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중 세계최초로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
- ▶ 전주는 세계음식창의 도시로 지정된 음식의 도시로 지정(12)
- 전주비빔밥 : 콩나물, 쇠고기 육회, 미나리 등 30여 가지가 넘는 재료로 맛을 낸

* 음식창의도시 :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듯이 국제사회에 자랑할만한 그 국가의 주요 대표적인 음식을 선정 소개하는 것임

* UN Creative City : 유엔 유네스코가 각국마다 창의적인 도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에 디자인, 음식, 문학, 공예, 미디어, 영화 등을 선정하여 창의적인 도시를 선정

- ▶ 백제문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 ▶ 한국의 전통무술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있음
- ▶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5개)
 - 세계 문화유산 : 고창 고인돌(2000년), 화순·강화 고인돌유적 공동등재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공주·부여유적 공동등재
 - 인류의 무형유산 : 판소리(2003년), 전남과 공동등재
매사냥(2010년), 충남과 공동등재
농 악(2014년), 전국 30개 농악 중 전북 7개 농악 등재

○ 사천성

- ▶ 중국 국보인 판다곰의 발원지, 잔도(棧道·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낸 길)의 본고장이며, 유네스코세계유산이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음
- ▶ 전국에서 두 번째 장족(藏族) 집거지이며 제일 큰 이족(彝族) 집거 구역과 유일한 강족(羌族)집거구역임

- ▶ 중국 4대요리(북경요리, 광둥요리, 상해요리, 사천요리)의 하나인 사천요리의 본산지이며, 청두가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로 지정
 - 샤프샤프 '휘귀' : 볶은 고추기름이 뚝뚝 뜬 솥에 각종 고기와 야채를 데쳐 먹음
 - * 쓰촨요리(사천요리) : 마늘·과·고추 등 향신료를 많이 쓴 매운요리, 식품의 저장법 발달, 요리가 기름지지 않고 매운 것이 특징)
- ▶ 무협지의 단골 격인 9대문파 중 도가의 청성파(靑城派)와 불가의 아미파(峨眉派), 5대세가의 하나인 당문(唐家)이 있음
- ▶ 지진이 자주 발생함
 - ('08.5.12.) 원촨(汶川)현에서 리히터 규모 8.0 지진 발생
(사망자 69,000명, 부상자 374,000명, 행불자 18,000명)
* 우리나라 지원 : 119구조대원 민간의료진(44명) 파견, 성금 모금
 - ('14.11.6.) 원촨(汶川)현에서 리히터 규모 3.3 지진, 량산(涼山) 이족자치주 무리(木里) 티베트족 자치현에서 리히터 규모 3.1 지진 발생
 - ('14.11.12.) 멨양(綿陽)시 베이촨(北川) 창족자치현에서 리히터 규모 3.1 지진 발생
 - ('14.11.25.) 간쯔(甘孜) 티베트족자치주강딩(康定)현에서 리히터규모 5.8 지진발생, 4명부상
- ▶ 세계문화유산 : 5개
 - 구채구풍경구 : 자연유산, 1992년 등재(아바)
 - 황룡풍경구 : 자연유산, 1992년 등재(아바)
 - 어메이 산과 락산대불 : 복합유산, 1997년 등재(러산)
 - 청성산과 도강언 : 문화유산, 2000년 등재(청두)
 - 사천팬더서식지 : 자연유산, 2006년 등재(청부, 아바, 감자, 예안)

2 유사성

- 전주와 청두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음식창의도시로 지정
 - 콜롬비아 포피안(2005), 중국 청두(2010), 스웨덴 와스터순드(2010) 한국 전주(2012)
- 천년고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 (전주)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 조선왕조 500년을 꽃피운 이성계의 본향
 - (청두) 삼국시대 유비가 촉한을 통일한 뒤 수도로 삼음
- 한국의 태권도 무술(무주), 중국 아미파 무술(사천성)이 성지
-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의 장수 “관우”와 관련한 묘가 소재
 - (전주) 관운장을 모신 “관성묘” 소재
 - (청두) 삼국지(삼국연의)에 나오는 관우의 머리 무덤 “관림묘” 소재

IV. 전라북도와 사천성 교류현황

1 경제분야

- 제13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참가(12.10) : 도내 6개 업체
- 제14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참가(13.10) : 도내 5개 업체
- 제18회 중국사천춘철쇼핑패스티벌 참가(14.01) : 도내 6개 업체
- 제15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참가(14.10) : 도내 8개 업체
- 서부(사천)수입박람회 참가(15.10) : 도내 12개 업체



2 정부교류

- 중국 사천성 청소년교류단 전북 방문(14.7)
- 2014년 김광수 의장 등 의장단 사천성인대 방문
 - 팽유 사천성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과 환담 및 만찬(14.12.19)



《 사천성 인대 상무위 팽유 부주임 환담 》



《 왕홍장 사천성 공업상업연맹 주석 겸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환담 》

○ 진립 사천성 외사교무국 주임 등과 환담 및 만찬('14.5)



2014. 5. 12 전라북도 중국사무소 소장 유희두, 백정기 대표 및 한중문화협회(청두) 박원서 회장 일행은 사천성 외사교무국 진립 주임과 전라북도 교육시스템과 전통문화에 대하여 교류

○ 사천성 청두시 용천역구 · 전라북도 완주군 우호협력 체결('13.3)



2013년 3월 18일, 청두 한중문화협회의 추진하에 청두용천역구와 완주군은 우호구역관계를 체결하고 우호도시관계를 맺고 교류합작을 심화하고 공동발전 도모

○ 사천성 청소년교류단 전북 방문('13.7, '12.7)

○ 전북 주관 중국지방정부 관계자 초청연수('10년부터)

- 사천성 ('13년) 3명, ('14년) 2명, ('15년) 2명

3 민간교류

○ 2007년 전주KBS, 전주뉴스 등 매체 청두 고찰

○ 2009년 전주대학 청두 방문

○ 2011년 사천성 기업가 전라북도 새만금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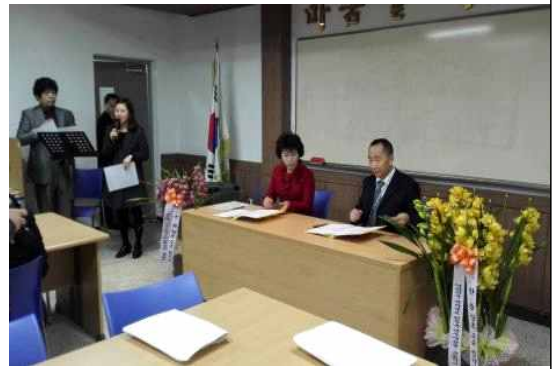
○ 2012년 사천성 신희망그룹 지도자 전라북도청 및 의회 방문

○ 사천성 덕양 5중 · 전라북도 서곡중학교(청두 한중문화협회 추진)

○ 청두시 용천역 제2중학교 · 전주예술고등학교 우호관계 체결('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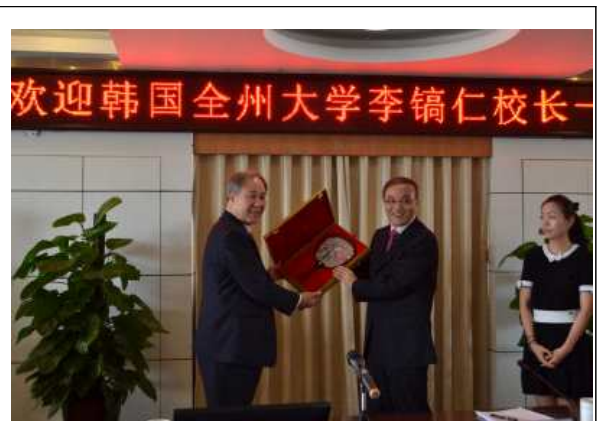


《 사천성 덕양 5중·전라북도 서곡중학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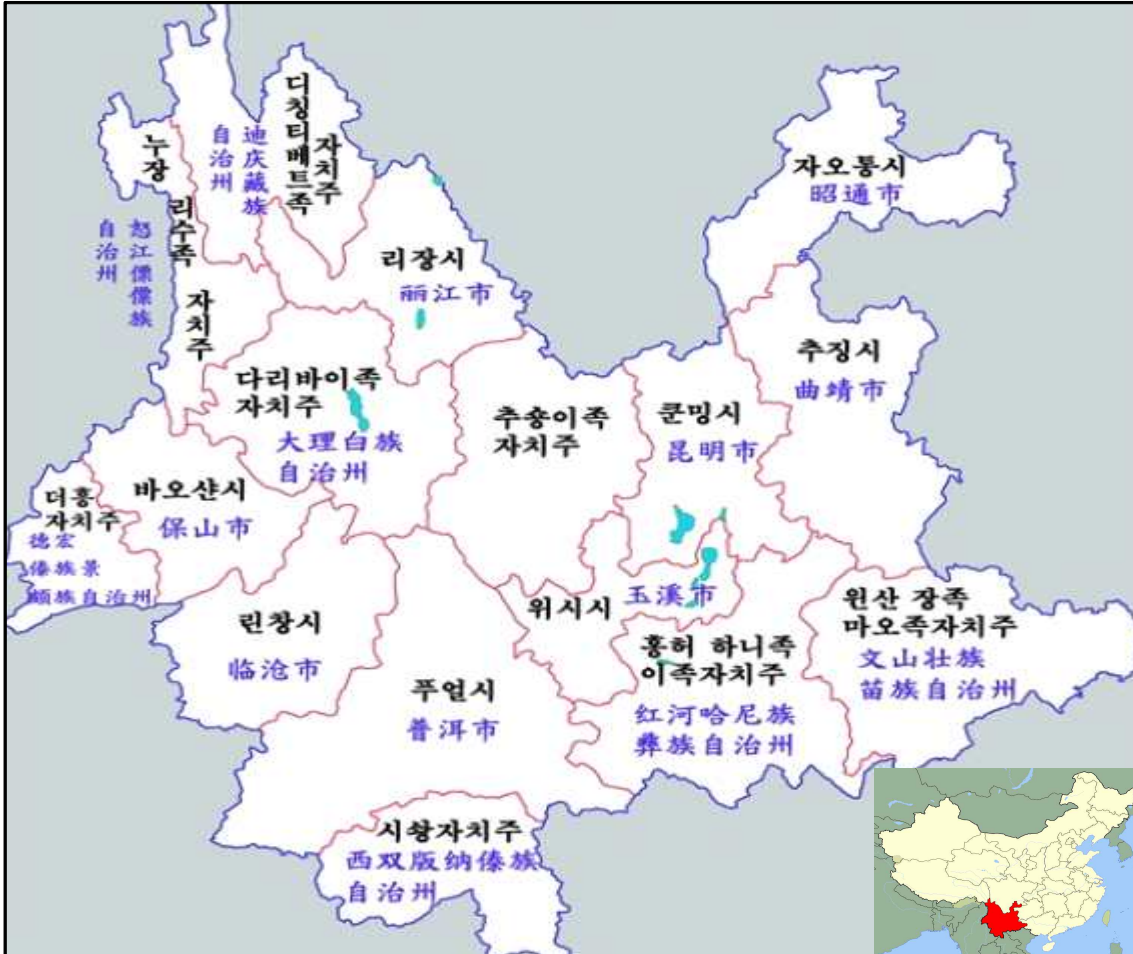
《청두시 용천역 제2중학교·전주예술고등학교》

- 사천 희망자동차직업학원·전주비전대 우호협력 체결
- 사천 청두자동차직업기술학교·전주비전대 우호협력 체결
- 북방자동차직업기술학교·전주비전대 우호협력 체결
- 귀양자동차직업기술학교 ·전주비전대 우호협력 체결
- 사천성시직업학원·전주대학 2015 한중프로그램사생간담회



- 청두미식산업협회와 전주창의음식센터에서 협력 체결('14.1.5)
- 제6회 "중국의 맛, 청두의 해" 및 "청두스타일" 행사에서 주최측이 전주 KBS 방송국 및 전주여성그룹 HUSH를 초청('13.2.13)
- 전라북도에서 사천성 방송국 초청하여 무주태권도원과 안전체험기지 촬영 및 홍보('15년)

I. 일반현황



- 인 구 : 4,300만명(2015.4월)
- 수 도 : 곤명(쿤밍)
- 면 적 : 394,100km²(중국 4.1% 차지, 한국의 2.5배)
- 지 리 : 차마고도의 시작점, 해발 2,500~3,000M로 서쪽인 히말라야로 갈수록 고지대가 형성
- 기 후 : 지역별로 기후가 다르며 연교차는 작으나 일교차가 12~20도 큼, 아침에는 비교적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더우며 밤이 되면 추워짐
- 민 족 : 약 55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26개 소수민족들이 중국 정부에 정식 등재

○ 경 제

- 중국의 대표적인 임산자원 및 광산자원 등이 풍부한 6개 성 중 하나이며 대표적인 담배 생산기지로써, 성내 10대 국유기업 중 담배생산기업이 8개 포함되어 있음
- 양식작물로는 벼, 옥수수, 밀, 콩류, 감자 등 이며 상업작물로는 유채(청경채), 담배잎, 사탕수수, 찻잎, 면, 마 등을 생산 운남성의 담배잎 생산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 운남성 일부지역에서는 고무와 커피, 기름야자, 금계랍나무, 후추, 사이잘삼, 레몬그라스 등 열대작물을 생산하기도 한다.
- 지하자원은 53종의 광물자원 매장이 확인되고 있는데 갈탄, 알루미늄, 납, 아연의 매장량은 전국 1위이며 주석, 백금, 인듐, 철 등은 전국 2위, 구리, 니켈은 3위를 차지
- 채취 가치를 지닌 광물이 현재까지 150여종 발견되었으며 납, 아연, 주석의 매장량이 매우 많다. 강이 많아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삼림 복개율이 40%에 달한다.
- 기계, 제련, 강철, 석탄, 전락 등 중공업과 담배, 차, 설탕제조 등 경공업이 발달했다. 천연고무 및 유색금속 생산기지이며 담배산업은 운남의 제1산업이다.

II. 역사적 배경

- 곤명은 기원전 279년 주나라 말 초나라의 장수가 사천성 성도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운남성으로 이주해와 이 지역을 정복하여 정착한 것이 그 시원임
- 곤명은 태평양전쟁에는 지방 토호들의 수중에 있었으나 일제의 동남아 진출 야욕의 교두보로 내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며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이끌기 위한 군수물자 공급지로 활동되기도 함

II. 특성 및 유사성

① 양 지역 특성

- ▶ 전주는 230여개의 지방도시중에서 2개의 왕조가 창업된 유일한 도시
 - 9세기 후백제 왕조와 14~19세기까지 500년간 왕위를 계승해 온 조선왕조의 본고장으로 1,200여년의 역사를 자랑
- ▶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의 유일한 도심속 근락지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중 세계최초로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
- ▶ 전주는 세계음식창의 도시로 지정된 음식의 도시로 지정(‘12)
 - 전주비빔밥 : 콩나물, 쇠고기 육회, 미나리 등 30여 가지가 넘는 재료로 맛을 낸

* 음식창의도시 :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듯이 국제사회에 자랑할만한 그 국가의 주요 대표적인 음식을 선정 소개하는 것임

* UN Creative City : 유엔 유네스코가 각국마다 창의적인 도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에 디자인, 음식, 문학, 공예, 미디어, 영화 등을 선정하여 창의적인 도시를 선정

- ▶ 백제문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 ▶ 한국의 전통무술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있음
- ▶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5개)
 - 세계 문화유산 : 고창 고인돌(2000년), 화순·강화 고인돌유적 공동등재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공주·부여유적 공동등재
 - 인류의 무형유산 : 판소리(2003년), 전남과 공동등재 매사냥(2010년), 충남과 공동등재 농 악(2014년), 전국 30개 농악 중 전북 7개 농악 등재

○ 운남성

- ▶ 민족의 종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성으로 소수민족의 인구가 1533만명에 이르며 총 인구수의 33% 차지
 - 모든 소수민족들이 각각의 고유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나시족의 동파문자는 현재에도 사용되는 유일한 상형문자임
 - 루구후(해발 2,000미터 이상의 산들 사이에 위치)는 모수족이 이라는 모계 중심사회인 민족이 살고 있음

-
- ▶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동남아 국가들과 접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중의 하나임
 - ▶ 중국에서 식물종류가 가장 많아 3만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식물의 왕국"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보이차와 호두의 주산지임
 - ▶ 사계절 내내 꽃이 피워있고 꽃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온난한 기후로 봄의 도시(춘성)이라고도 불림
 - ▶ 삼복더위인 여름에도 기온이 20℃를 넘지 않고 겨울에도 8℃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함
 - ▶ 지진이 자주 발생함
 - (15.10.30) 바오산(保山)시 창녕(昌寧)현에서 5.1지진으로 1만2천명의 이재민 발생, 학교 등 9천여채 건물 피해
 - (14.08.04) 자오통시 루톈현에서 6.5지진, 589여명 사망, 9명 실종, 2,014명 부상, 주택 1만2천여 채 붕괴, 3만여채 건물 피해 등
-

2] 유사성

- 운남성에 과거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던 청산리전투 이범석 장군 등 30명의 한국인이 졸업한 학교(육군 강무당) 가 있음
 - 운남강무학교(육군강무학교) : 중국의 장교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로 현재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 전라북도와 운남성은 산이 많고 관광산업이 발달되었으며 쌀로 만든 음식을 주식으로 함

III. 금후 협력분야

□ 우호교류협력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상호방문 교류

- 상호방문 시 수반되는 방문단 인원수와 방문기간 및 이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 등 비용부담은 ?

- (방문단 인원수) 15인 이하
- (방문기간) 파견측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초청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문기간은 2박 3일
- (비용부담)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 등의 비용은 초청측에서 부담
 - (항공료) 파견측에서 부담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 초청측에서 부담
- (비용부담 적용시기) 2016년도부터 적용

IV. 전라북도와 운남성 교류현황

□ 교류실적

- 운남성장애인연합회(전북지체장애인협회와 자매결연) 임원 전북 방문('07.8)
- 운남성 신농촌연수단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방 견학('08.3)
- 운남성 외판주임 우호교류협약체결 사전 논의 전북 방문('09.7)
- 전라북도와 운남성간 우호교류협약 체결('09.10)
- 마오원귀 운남성 공산당위원회 사무국장 겸 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운남성 우호대표단 전북도 방문('09.11)
- 전라북도의회와 운남성인대와 우호교류협약 체결('11.8)
- 운남성 대리시 대표단 전북 방문('12.12)
- 운남성 우호교류대표단 전북 방문('14.4, '14.9)
- 우호결연 5주년 정무부지사 운남성 방문('14.6)
- 전북 주관 중국지방정부 관계자 초청연수('10년부터)
 - 운남성 ('10년) 5명, ('12년) 2명, ('13년) 2명, ('14년) 4명, ('15년) 4명
- 중국 곤명 수출입상품 교역회('07~'15, 5회 42개 업체 참가)
 - ('07년) 10개, ('12년) 10개, ('13년) 7개, ('14년) 7개, ('15년) 8개 * '11년 산동사무소 4명